

불교생태운동 ‘말보다 실천’

불광연구원 봉축 학술연찬회... 류정길 대표 “스님 의존 한계 명확” 지적



류정길 대표



이도흠 교수



서재영 연구원

“지역자치, 분권화를 토대로 지방사찰을 기본 모델로 지역의 도덕적 권위그룹을 형성해 불교 생명평화운동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불광연구원 2011 봉축 학술연찬회’의 발제자로 나선 류정길 대표보다 대표는 불교 생태주의 운동의 미래를 위해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닌 생태주의적 메시지로 인식하고 지역중심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광연구원은 ‘한국불교의 생태담론과 생태운동’을 주제로 6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도흠 한양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경준 동국대 교수, 김중욱 동국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허남걸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류정길 대표는 ‘한국불교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 주제발표에서 “환경문제를 단순히 자연 파괴, 오염, 폐기물 문제의 해결로 인식하는 사람은 결국 자연을 잘 보존하고 오염시키지 말자는 결론을 내린다”며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류 대표는 “최근 생태주의 운동에서 보여준 불교의 지도력은 1970~80년대 개신교와 가톨릭의 지도력을 넘어설 정도로 사회적 결정력과 도덕적 권위를 부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은 종단의 제도와 안정적 지원도 아니고, 불자대중의 지지를 토대로 확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몇몇 관심 있는 스님들의 지도력에 의존한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류 대표는 “수경 스님이 몸 담았던 불교 환경연대의 파행을 보면 스님에 대한 의

존적 토대가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 상황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길 대표는 불교 생태주의 운동의 미래를 위해 ‘불교환경의제21’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개혁을 실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불교환경의제21이 정부나 지자체, 기관과 함께 전환과 변화를 도모할 때 민주적 사찰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사람별로 환경위원회를 결성해 사찰을 바로 알고, 가꾸고, 일꾼이 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신도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불교 산림과 국립공원, 백두대간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교를 수호하는 것이므로 사찰이 지역의 산림을 지키는 역할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제자들도 불교생태운동을 위한 적극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생명·생태론과 그 실천운동’의 주제발표에서 최치원의 불일불이(不二) 패러다임을 소개하며 서양과 동양의 사상의 융합만이 생태운동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홍수를 막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댐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터주는 것이다. 댐을 쌓는 것이 근대적·서구적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면, 물길을 터서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화성의 불일불이(不二)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양자를 하나로 아울러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실천을 행할 때, 사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선원(禪院)의 생태적 사유와 전통’ 주제발표에서 “선승들의 수행문화가 살아 있는 선원의 삶과 수행자들의 가치관은 생태적 가치관과 삶을 정초하는데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한국의 선원은 소육지족과 청빈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오히려 전승돼 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선원의 수행문화도 현대문명에 동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행과 노동의 분리, 선원에서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의존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전통적인 선농일치의 삶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숲을 지키고 사찰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는 산주로서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 중 한국불교의 환경운동과 관련된 논문 4편은 오는 6월 20~27일 대만 범고산사에서 개최되는 세계불교학자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불교 생태관으로 새환경운동을 한국불교 환경운동가 집중 조명

이번 연찬회에서는 도법 스님, 수경 스님, 지을 스님 등 한국불교의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활동가들에 대해 조명했다. 조은수 서울대 교수는 ‘지을 스님의 생태운동과 에코페미니즘’에서 지을 스님을, 이도흠 교수와 류정길 대표는 도법 스님, 수경 스님, 문수 스님을 조명했다.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운동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화엄연구원을 바탕으로 <생명평화경>을 만들기도 한 스님은 2003년 ‘지리산 생명평화경사’를 창설해 5년에 걸쳐 전국 방방곡곡 1만2000여km를 돌며 생명평화의 씨를 심었다. 대안의 공동체 건설에 매진하기도 한 스님은 불교귀농학교,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지역공동체운동 및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경 스님의 환경·생명운동

경북 군위군 지보사 문수 스님(세남 47세)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유서를 남긴 채 5월 31일 오후 3시경 낙동강 둑방에서 소신공양했다. 이은정 기자

지을 스님의 도롱뇽 소송

지을 스님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2001년부터 국토순례, 삼보일배, 단식투쟁에 이어 부산시청 앞에서 매일 3000배를 했으며, 다시 부산역~천성산 화엄별 구간에서 걸쳐 다시 삼보일배를 하며 끈질긴 활동을 전개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불교환경연대, 지역조직 강화 나선다

4대강 사업 구간 우선 추진하기로

불교환경연대가 집행위원회를 열고 지역조직 설립과 불교환경의제21의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제41차 집행위원회’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5월 25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 1주년 행사 참여, 지역조직 설립, 불교환경의제21 정비, 어린이 생태·명상학교, 아이 숲 사업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환경연대는 올해 다양한 사업 추진보다는 조직 안정화 및 체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불교환경연대는 그동안 지역 조직 중 광주전남지부가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불교세가 강한 영남권에서는 뚜렷한 지역 조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 추진 구간을 중심으로 지역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집행위원 및 각종 홍보를 통한 창립 대상자를 모집하고, 조직구 설립 매뉴얼 규정을 기초로 창립을 지원한다. 불교환경연대는 지역조직이 강화될 경우 불교 환경단체로서 다양한 활동과 즉각적인 환경현안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공원내 문화유산 보존활용 MOU

문화재청(청장 최광식)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5월 31일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문화유산 관리와 재해 예방 등에 확

“4년 임기동안 1000억 건학기금 모으겠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 제2건학 운동 기금 마련 행사서 밝혀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제2건학운동 기금 마련을 위해 5월 31일 그랜드앰버

서더호텔에서 ‘제2건학 RE_START DONGGUK’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연 스님, 동국대 김희옥 총장,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 동국대 이연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스님들과 동국대 동문, 교직원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가 추진하는 ‘제2건학 운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동국대 발전은 곧 한국불교가 발전하는 것과 같다. 제2건학 추진으로 동국대가 종립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국제적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정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동국대는 지난 1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국사회에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동국대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현재까지 55억 상당의 제2건학 기금이 조성됐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서 약 100억 원 상당의 기금이 약정됐다. 한편, 동국대는 4년간 1000억 원의 제2건학 기금 조성 과 남산 대운동장, 수영장 매입 등을 위해 ‘땅 한 평 갖기’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의계 제자리 찾기 강원도 문화계도 동참

조선왕실의계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강원도 단체들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또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도 본래 보관됐던 강원도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월정사와 조선왕실의계환수위원회 및 강원도 문화예술계는 춘천 문화원 회의실에서 5월 27일 실무회의를 열고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계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다각도의 협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추진 준비위 관계자는 “한국은 결정됐지만 아직 소장처는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실록과 의계가 고향인 강원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화사 목련관 위패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광사

연등승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